

제주국제자유도시 시대 학교교육의 과제

(The Subject of School Education Following Building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宋 尙 舜*

1. 들어가며

제주는 지금 존망성쇠의 기로(岐路)에 서 있다. 이른바 ‘국제자유도시’의 출범에 따라 미증유의 격변에 직면해 있기 까닭이다. 게다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겪어야 할 변화의 소용돌이는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고 거세어져 갈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지금은 바야흐로 우리의 의식과 행위를 일대 전환하여 목전의 새로운 도전에 맞갖게 대응해 가는 일이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을 치러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만일 이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날의 지속적 발전과 번영은 고사하고 생존 명맥의 지탱조차도 위태롭게 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대응의 과제는 각가지 성문 법령이나 불문 관행 등의 제도를 보완 개선하거나 혁신하는 일을 비롯하여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개선책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들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다. 비록 그 일이 막연하고 요원하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거지와 자질 등을 바꾸는 것 말고는 달리 지름길이 없음을 인류가 치러온 숭한 경험이 확인해 주고 있다. 일찍이 플라톤(Platon)은 교육에 의한 인간 개조가 빠진 사회 개혁은 히드라(Hydra)의 머리 자르기와 마찬가지로 지적한 바 있거니와, 교육적 노력이 결여된 변화의 시

*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도와 추진은 한갓 도로(徒勞)로 끝나거나 심지어는 사정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결과마저 초래케 마련이다.

물론 교육하는 일이 간단 용이한 노릇은 아니다. 많은 정성과 노력과 경비와 시간을 쏟아야 할뿐만 아니라 작심하고 착수해서 기껏 하노라고 해도 뜻대로 안되기 일쑤인 게 교육이다. 그렇더라도 교육은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불가결(不可缺)의 것이고, 또한 비록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확실하게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도이기도 하다. 때문에 결코 도외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과업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교육을 하는 일의 핵심과 태반의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따라서 당해 사회의 변화에 접하여 그에 대응하는 교육을 적절하게 고안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학교교육의 필수적 책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목하 부딪치고 있거나 또는 불원간 부닥뜨리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엄청나고 심각한 변화의 추이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이 계획하고 그 구현을 실행해 나아가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런저런 것들을 부지기수로 열거할 수 있을 성싶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최우선적 과제로 생각되는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하여 검토코자 한다. 그 하나는 변화의 수용에 강한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병행하여 당면한 변화의 추이에 걸맞은 사고와 태도와 역량 등을 육성하고 신장시키는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 가는 것이다.

2. 변화에 강한 문화를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변화 그 자체를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사회는 결코 변화를 성공적으로 처리해낼 수 없다. 우리가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변화의 수용을 두려워하고 꺼리어 구태의연하게 현상(現狀)을 답습 고수(status in quo)하고자 하는 문화적 분위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체하여 변화에 따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취사 선택하여 수용해 나아가는 문화를 형성해 가야 한다. 아울러 그러기 위해

서는 이를 위한 교육을 진작하는 일 또한 반드시 선행 내지 병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변화의 수용에 강한 문화란 대체로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은 특징들을 갖는다고 한다. 그 하나는 사람들이 애매한 상황이나 익숙지 않은 일이라든가 여태까지의 것이나 자신의 것과 다른 것들에 대하여 위협시하는 대신에, 불확실성을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관행이나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하여 호기심과 모험심을 갖는 그런 문화이다.

그 둘은 사람들의 행위 동기가 주로 안정보다 성취에 있고, 남들의 엉뚱하고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도 대체로 억제적이기보다는 수용적이며, 셋째로는 법규의 수가 많고 면밀하며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변해야 할 것은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 쪽이라고 여기고 자라나는 세대에 요구하는 규칙들이 엄격(tight)한 대신에, 법규가 많지 않고 포괄적이며 꼭 필요한 것 이외의 규칙은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고 기존의 규칙일지라도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없애거나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규칙에도 융통성이 있다.

넷째는 원리주의적 편협성을 지니고 극단·절대주의적이며 반대 의견의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예외와 차이와 반항에 관대하고 상대주의적이며 중용을 중시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반대인 사람들도 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섯째는 젊은이들과 소수집단들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억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통화(integration)지향적이며, 여섯째는 대체로 민족주의적이고 외국인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경향을 갖는 대신에, 지역주의적이거나 국제주의적이고 이방인들에게 우호적이다.

그리고 일곱째로는 교사는 모든 경우에 정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학생들은 규격화된 학습상황을 편하게 느끼며 정답을 아는 데 관심이 있는 대신에, 교사들도 거리낌없이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학생들은 개방적인 학습상황 속에서 활발한 토론을 하는 데 익숙해 있는 ... 등등의 특징들을 지니는 문화이다.

어떤 사회의 문화가 이상과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회는 엄습해오는 변화에의 요청을 잘 수용하고 소화하여 보다 옹골지고 가멸친 미래로의 성장 발전을 거듭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국제자유도시란 파천황(破天荒)의 변화를 겪게 되는 우리의 고장인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지역 학교교육이 현 시점에서 우선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

의 한 가지는 이곳 제주가 어떤 변화의 도전에 대해서도 시종 감당해낼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그런 시련을 오히려 도약의 기회와 구름판으로 이용해 갈 수 있는 - 그런 변화에 강한 문화를 지닌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에 자기 몫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변화 추세에 맞갖은 내용의 교육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의 학교교육이 힘써야 할 과업은 일면 변화의 추세에 적절히 부응하는 동시에 그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데에 요청되는 사람들의 안목과 사고와 정서와 태도와 지식과 기능 등등의 육성과 보급에 기여하는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변화를 특징짓는 대표적 현상의 하나가 세계화(globalization)라고 하는 데는 식자들 사이에 별 이견이 없는 듯싶다. 인류는 자신들이 원하던 않던 간에 이미 시·공간의 압축으로 하여 범세계적 상호작용의 확장과 심화의 가속적 진행이라는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 있다. 이제 국가간의 울타리가 거의 무의미해질 정도로 이른바 인종탈출(ethnoscape)이라든가 기술탈출(technoscape), 금융탈출(financescape), 미디어탈출(mediascape), 이념탈출(ideoscape) 등등이 급격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바야흐로 지구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의 거의 즉각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지구촌(global village) 내지 세계 단일화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 지구적 차원의 생활권 통합으로 인하여 여러 문화들 간의 동화현상이 촉진되면서 이른바 단일 세계문화(a global/world culture) 형성에로의 추이(推移)가 시나브로 속도가 붙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기는 이런 흐름에 저항하여 각개 민족과 지역마다의 다양한 문화적 이질성 내지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만만찮게 완강하여서 이들 두 동향 사이의 긴장과 충돌의 문제가 점차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 역시 결코 도외시나 등한시되어선 안 되는 오늘날 세계의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제 세계화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성실다. 대저 세계화의 추세는 역류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빠르고 폭넓게 진행되어 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오늘날 그것은 당위적 요청의 문제라기보다 불가피(不可避)의 엄연한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심지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조차도 그것의 세계화된 연대와 대처 없이는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어 가는 그런 형편에 있다. 말하자면 목하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살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단지 살아 남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이곳저곳에서는 그에 부응 내지 대응하기 위한 이런저런 조치들을 취하기에 한창이거니와, 우리만 예외일 수 없다. 우리라고 해서 특별히 세계화 추세란 호랑이 등에서 벗어날 여건이나 재간이나 그리고 그럴 까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보다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는 그 세계화의 각 분야별 구체적 내용, 진행 속도의 완급, 대응 내지 추진 전략과 정책의 유형 등등에 관하여 미세 조정(fine-tuning)을 하는 작업들은 우리의 슬기와 손길과 맘을 필요로 하는 불가결의 급선무(急先務)로 남는다. 아울러 이런 일들을 지원하거나 주도하기 위한 각가지 교육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들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 고장인 경우에 장차 명실상부한 제주국제자유도시로 바뀌어 나아가면 갈수록 그에 선·병행하여 이러한 일들의 이행과 성취는 더욱더 절실한 과제로서 부각되어 가게 마련일 것이다.

4. 다중적 시민성을 길러 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국제자유도시의 시대를 맞으면서 가일층 촉진될 세계화의 추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히 수행되어야 하는 학교교육의 과제들 중의 하나는 세계시민성(global/world citizenship)의 육성이다.

세계시민성이란 이즈음에 와서 돌연히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여기저기서 간간이 이런저런 뜻으로 운위되어 왔으며, 그래서 그에 담긴 내포가 자못 다양하다. 그러나 이 용어의 내력이라든가 다소간 서로 다른 몇몇 어의(語義)들을 새삼 검토하는 일은 생략하고, 여기서는 세계시민성을 무릇 개인이 자기가 속한 국가의 테두리를 초탈한 보다 보편적인 도덕물에 따라서 '지구적 차원의 책임감'(global consciousness of responsibility)을 보이면서

생각하고 행위하며 살아가는 것 정도로 간주하고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의미의 세계시민성 역시 종전에는 없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비로소 생겨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게 엄연한 현실의 거센 압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그 육성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유도피아적 제시의 성격을 띄고 있던 지난날의 것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초(超)국가적 세계화 과정의 진행은 지금까지 국경 속에 갇혀 있던 지방들로 하여금 탈(脫)국가화하여 국제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주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는 이른바 지방화(localization)의 현상을 가일층 촉진시키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단지 세계시민성 뿐만 아니라 그와는 다른 수준의 이른바 지역적 시민성(local/municipal citizenship)까지도 포함하는 탈국가적 시민성(postnational citizenship)을 함양하는 교육을 수행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있다. 게다가 이런 세방화(global localization, glocalization)라고도 일컬어지는 현상의 증대와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는 인류의 기초적 공동체 생활의 단위로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체가 전망되지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도 않기 까닭에, 국민적 시민성(national citizenship)을 훌륭하게 길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역시 여전히 우리 교육의 중요 과제로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들 다중적 시민성(multiple citizenships)의 어느 하나에만 편중하거나 그들 상호간의 갈등을 방치하는 일이 없이 그 모두를 조화롭게 겸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조만간 단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와 같은 다른 여러 수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 그 어느 차원의 시민성이나 정체성을 위한 교육도 부정되거나 괘시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 제주도민들의 경우는 창자 명실공히 국제자유도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래밍과 그 실행은 우리의 학교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활동임은 물론이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필수적 주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들 상이한 수준의 시민성들은 비록 서로 공통되는 내용 요소들이 적잖게 있긴 하지만, 또한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생활의 구체적 상황 안에서는 모든 수준의 시민성들을 조화롭게 발휘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경우가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갈등사태는 차원이 다른 것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그 중 어느 한 차원만의 시민성을 위한 교육 안에서도 종종 야기되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학교교육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도덕·사회교과의 수업 등에서 이런저런 가치갈등에 처하여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는 데 쓸모 있는 여러 가지 개인 안에서의와 개인들 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skills)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노력은 다중적 시민성 서로간의 딜레마를 풀어 가는 데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서로 다른 수준의 시민성이나 정체성 사이의 갈등 문제는, 예컨대 조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도 감연히 반전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는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에 따른 결단에 의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교육에서 보다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이한 수준의 시민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해법을 가르치기에 앞서 그 어느 한 차원의 시민성을 기르는 일에서조차도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인 경우는, 이를테면 그 단적인 예로 언필칭 세계화를 위한 교육 내지 교육의 세계화를 강조하면서도 막상 세계사 과목은 외면과 홀대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가장 소홀히 해 왔었기 까닭에 앞으로는 보다 강조되어야 마땅한 부문인 듯싶다.

하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배후 의도에는 당초 그에 대한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행을 위한 과업의 연구 목적 첫 항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제주도를 한국 시장 개방의 최전선으로 개발’하여 ‘세계화 시대에 있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로지 이런 목적만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 및 노력에는 대체로 경쟁보다는 협동을 보다 바람직한 행동유형으로 여기는 세계시민성교육의 강화는 오히려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수반될 수 있다.

물론 개별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사해동포(四海同胞)적 협동심 양양은 서로 어긋나고 상호 대립 충돌하는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 둘은 반드시 그 중 한 쪽만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모순 관계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남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경쟁은 적의와 갈등과 사생결단을 통한 ‘승리하거나 아니면 패배(win or lose)’로 귀결되기 십상이지만, 자타 모두에 대한 긍정을 바탕으로 하

는 선의의 경쟁은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각자의 개성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상호보완과 상부상조의 협력으로 나와 남이 함께 득승(得勝)하는 '득-득/승-승(win-win)'의 결과를 도모하고 창출해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거시적으로 보면 후자가 전자의 경우보다 더 생산적이고 확고한 승리를 달성하는 방도인 것이다.

5. 세계시민교육을 보다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즉 안목과 태도 및 지식과 기능 등의 역량을 함양키 위한 세계시민교육(education for world citizenship)은 이따금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화코자 하는 차원에서 이해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을 시도하고 추진하는 속셈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 교육의 중핵은 인류와 더불어 살기를 익히는 것(learning to live together)이 아닐 수 없고 또 그래야 마땅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시민교육이 다루어야 할 것은 이것저것 엄청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곤란하지만, 그렇더라도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는 언급에서 빼서는 안될 성싶다.

첫째는 지구적 시각(global perspective)을 가지고 세계의 다양성에 대하여 열린 마음(open-mindedness) 내지 문화상대주의적 관용성(tolerance)을 함양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본위의 시각에서 벗어나 나 아닌 남들의 입장에서 도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인간 특유의 능력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집(我執)적 사고와 독선적 처신에서 벗어나 남들과 함께 아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남들이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수준의 사회를 즉 나의 가정과 동네와 고장과 나라 등의 구성원들이고 보다 넓게는 이 세는 예전의 한 마을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이다. 그러므로 세계시민은 우선 관점채택(perspective taking)에서 개방성을 가지고 보다 좁은 각 수준의 자기집단중심의 편견에서 탈피하여 시야를 온 세계로 확장하고 다각화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 공유의 보편적 존엄성과 기본권 및 욕구와 관심과 이상 등등에 대하여 수긍하고 아울러 자타 집단 상호간의 상이점이라든가 각개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원주의적 사고방식 내지 가치관을 익혀 지닐 필요가 있다.

둘째는 위의 개방 의식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행위로서 지구공동체의식(global community awareness) 내지 세계가족인식(sense of global family)을 가지고 전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한 협력을 중시하여 그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이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개인과 집단들 서로간의 의존성 및 상호 보완의 필요성을 깨닫고, 상대방을 '동지 아니면 적'으로 나누는 식의 흑백논리 내지 양분법(dichotomy)적 치졸한 생각과 거동의 성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만이 완승하여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쪽은 완패하여 잃어야 하는 승부(zero sum game) 대신에 당사자 모두가 승자가 되어 이득을 보는 거래(positive sum game)를 하고자 하고, 즉각·직접적 전리(戰利)에의 집착보다는 장기적이고 우회적인 과정에 의한 결실의 수확을 추구하며, 철칙 고수와 극단주의와 과거지향적 수구성이 아니라 융통성과 중용(golden mean)과 미래지향적 진취성을 선호하고 발휘하는 쪽으로 삶의 패턴을 전환시켜 가는 일도 포함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호의(global membership and friendship)를 가지고 또 드러내어 혈·지연 등의 불합리하고 편협한 집단 경계를 넘어서는 참여와 연대(participation and solidarity)에 투신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원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의 해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헌신하려는 의지를 키우는 일, 이를테면 자신의 거주지역의 경우는 물론이고 전 지구와 미래의 인류까지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평화와 정의에 관여(commitment to peace and justice)하고 환경 생태계에 대하여 관심(ecological concerns)을 기울이도록 하는 등등의 교육적 고안과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아정체성은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가족과 이웃과 동향인과 겨레 등으로 넓혀가면서 마치 원둘레를 달리하는 여러 겹의 동심원(同心圓)과 같은 열개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집안 식구의 과오를 곧 제 자신의 수치로 여긴다든가 월드컵 축구에서의 자기 나라 팀의 승리를 마치 제 자신의 일인 양 좋아하며 열광하는 데서 보는 바와 같은, 이런 확대된 자아는 각 수준의 작고 큰 공동체들의 결속을 지탱하고 강화시키는 심리적 기반이며 그들 공동체를 위한 이른바 멸사봉공(滅私奉公)적 헌신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런데 세계시민교육이란 이런 다중적 자아정체성 동심원에서 집안이란 안쪽의 작은 데

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을과 지방과 국가 그리고 가장 바깥의 큰 동그라미인 세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동체 사이의 칸막이들을 죄다 열리게 함으로써 그 중 어느 수준의 자아도 잃지 않으면서 아울러 모든 수준의 자아를 한 컵에 다 살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두 과제 수행은 요컨대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인간 사회의 보편적 행위규범으로 여겨온, 이를테면 남들이 지닌 관점이라든가 어려움과 괴로움 등의 심정을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추기급인(推己及人)으로 상상하여 그들의 공감(sympathy)을 이름으로써 인(仁)을 실현하는 서도(恕道) 또는 '정의의 실천적 처세훈'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이라든가 그것의 적극적 방식(positive form)인 '남들이 자기에게 해줬으면 바라는 바를 그들에게 해줘라(Do to others as you would be done by. 己所欲 施於人)'는 황금률(golden rule) 내지 '사랑 계명의 통속적 표현(a popular version)'을 세계적이고 범인류적 차원의 생활 속에서 구현해 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지식과 기능(knowledge and skill)들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세계 안에 있는 여러 문화의 다양한 특징들과 서로의 공통점, 그들 사이의 접촉과 이식(connection and borrowing) 등에 의한 상호의존과 변용(acculturation) 현상의 내용과 그 역학관계, 세계의 경제·환경·정치·문화·기술적 체제와 그 변천과정(global systems and history) 및 국제적으로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지구 공동의 쟁점과 문제들(global issues and problems) 등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세계 속의 우리들 자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식 등을 갖게 갖추어 지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남들에 대한 공격적 자세를 취함이 없이 자신의 주장(assertiveness)을 명백하게 제시하되 자타와 상황과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통하여 상대방의 논리가 보다 더 합리적이거나 여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체 없이 자신의 소견을 바꾸어내는 융통성(flexibility)을 발휘하면서 공동의 목적과 가치의 구현을 위하여 남들과 더불어 뜻과 슬기와 힘을 효율적으로 모아 일해 가는 기법 등을 배워 익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 의사소통의 능력(global communication competency) 즉 외국어 구사력이라든가 예의 범절(manners and etiquettes)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상징체계의 체득, 그리고 정보망 활용 기능과 더불어 지구상황과 관련하여 범람하는 이런저런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선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등등을 신장시키는 학습이 필수적으로 요청됨도 물론이다.

6. 정체성을 살리는 교육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세계화된 사회(a globalized society)의 이웃들(neighbors)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모두 서로 벗들(friends)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그러기에 필요한 태도라든가 능력 등을 세계인이 미구불원에 배워 익힐 전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이나 그 도래(到來)가 예견되는 미래상이 어떻든지 간에 현실 속에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당장은 세계시민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국민이며 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세계시민교육은 인류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교육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상대방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우리 쪽에서 보면 저 쪽이 우리의 상대방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이쪽의 우리가 그들의 상대방이다. 따라서 저쪽에서 상대방인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하면 그에 앞서 우리가 저쪽에게 보여줄 저쪽과 구별되는 우리만의 독특한 그 무엇을 지니고 있어야만 한다. 때문에 세계화가 진척되어 갈수록 다른 문화에 압도되어 쇠멸되어버리지 않을 만큼 강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을 가일층 강화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래야만 세계문화 형성의 일익(一翼)으로서 참여하여 그 문화의 다채로움을 구성하는 한 몫을 맡아 그 풍요로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젠가 장차 우리가 국제적 정체성(international identity)을 지니고 명실공히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민족 내지 국민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라든가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들 자신에게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게 못된다. 그것은 마치 어떤 한 악기가 제 소리 내기를 포기하거나 위축시켜서 오케스트라 전체를 망그러뜨리는 처사와 진배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내

집이 사방으로 벽쳐지고, 창문들이 꼭 막혀 있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모든 대지의 문화들이 최대한 자유로이 내 집 주변에 불어오길 바란다. 하지만 나는 다른 어떤 문화에 의하여 내 발이 땅에서 떨어져 날아가 버리는 것은 거부한다'는 간디(M. Gandhi)옹의 말을 우리 조국과 향토를 위해서 뿐만 아니고 세계와 인류 전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만사에는 좋고 나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섞여 있게 마련이다. 이 점에서는 세계화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에게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각 문화들 사이의 알력과 충돌, 특히 그 와중에 벌어질 수 있는 문화간의 약육강식(弱肉強食), 그리고 그 귀결인 획일적 문화 형성으로의 추이 등은 자칫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쇠잔케 하는 버거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릇 문명이나 문화란 자기와 다른 것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이런저런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마련인 크고 작은 충격과 갈등을 겪으면서 변환하고, 그런 변화의 진통 속에서 취사선택에 의한 새로운 결합들을 창출해 감으로써 발전하는 법이다.

물론 지난날의 제주는 동떨어진 섬이 지나는 다소간의 단절·고립·폐쇄성과 주변성으로 하여 그 고유의 문화를 형성하고 보존해 가는 데에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는 세계의 그 어느 곳보다도 개방성과 중심지 성격을 지니는 곳이 되어 갈 것이고 또 필히 그래야만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앞날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라든가 지역적 정체성의 지탱은 자못 불안정하고 나아가서는 크게 위태로울 수도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장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중의 '제주'는 증발해버리고 '국제자유'만 남아 판치는 도시에서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한낱 기우(杞憂)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하면, 지금 제주는 자신의 문화적 면모를 획기적이고 비약적으로 일신시키면서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호기(好機)의 노다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대저 문화적 전통인 경우도 '괴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안팎으로부터의 도전에 응하여 재검토되고 재해석되고 창조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이 없이는 어떤 문화도 그 명맥을 이어나가기 어렵고, 더군다나 그 번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전적으로 외래 문화의 수입을 배제하거나 자기네 문화를 수출만 하는 그런 사회는 전 세계를 통틀어 어느 한 군데도

없다. 실은 어떤 문화가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발생하여 발달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느 사회가 얼마만큼 다양하고 적절하게 골라 섭취하고 자기 나름의 소화를 잘 해 나아가느냐가 그곳의 문화를 건강하게 살찌우는 문제를 푸는 관건(關鍵)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방을 통하여 세계적 보편성과 변화의 추이에 유연성과 포용성, 그리고 독창성을 가지고 보조를 맞추면서 우리 특유의 문화적 전통 - '한국다움'과 그리고 '제주다움'을 창조적으로 보존 유지하면서 아울러 우리 나름으로 세계 전반의 다채로움과 그에 따른 풍요로움(variety and abundance)에 기여해 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제주의 문화는 그 기저에 '조화를 지향하는 다중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에는 일찍부터 이질적이고 대립되는 것들을 조화롭게 수용하여 하나되게 함으로써 우리 것을 만들어 내는 데 슬기와 역량을 발휘해 온 경험들이 이미 어지간히 축적 전승되어 오고 있는 셈이다.

7. 나오며

요컨대 이것이나 저것을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방식으로 택하는 대응에서 탈피하여 다중의 시민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두루 길러내되 그 상호간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아울러 세계와의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조장해 나아가는 교육에 우리의 심신의 능력과 수고와 재정과 시간을 투입해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한번 정해진 각 시민성 교육의 비중 등에 마냥 '집중(執中)'할 게 아니라 그때 그때의 상황 변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그 배분을 달리하는 '시중(時中)'의 지혜를 발휘하여 당시에 적중(的/適中)하는 교육 내용을 창안해내는 데 우리들 모두의 중지를 지속적으로 모아 나아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미흡과 문제투성이다. 다중적 시민성이라든가 다중적 정체성(multiple identity)의 조화로운 발달은 고사하고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네의 실정이다. 비단 세계시민을 기르는 교육만 잘 안되고 있는 게 아니다. 그에 앞서 오래 전부터 누누이 강조하며 끊임 없이 한담시고 하여 온 한국인을 육성하는 교육 역시 부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지방민으로서의 시민성 내지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도모나 노력인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극히 미미한 상태에 있다.

게다가 암담한 것은 현상(現狀)만이 아니다.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든 한국이나 제주의 문화정체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든 또는 이들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이든 간에 이들 교육이 앞으로는 잘되어 나아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은 물론이고 전망도 그다지 밝은 형편이 못된다.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을 수행해 나아가는 과정에는 곳곳에 허다한 애로와 난점들이 기다리고 있게 마련이다. 더욱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저것 많은 것을 몽땅 가르치고 게다가 그 일을 훌륭하게 이룩해내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일은 불가불 꼭, 그리고 되도록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다. 물론 교육은 백년 대계의 사업이다. 이제 뛰기 시작해도 이미 늦은 셈이다. 그러나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착수하고 추진해 가는 게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천백번 따져도 잘하는 노릇이다. 이 일은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유예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그것을 계발하고 발휘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날 수 있는 인간의 잠재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아울러 인간의 숨은 선의(善意)에 대한 낙관적 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다가올 가깝고 먼 날들에 대한 설계와 그 구현을 위한 활동에서 부닥치는 각가지 제약과 장애들을 부수고 역경과 난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일은 어느 몇몇 개인이나 집단들의 뜻과 힘만으로 추진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까닭에, 제주지역 내외와 교육계 안팎의 관계자 모두의 의지와 지혜와 노력과 역량을 총망라하여 결집하고 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우리의 열정과 고민과 능력과 헌신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순원. “국제이해교육의 현재적 시사점”. 『국제이해교육』 창간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 4.

- 고충석. “제주의 세계화: 전략적 위상설정을 위한 발상”. 제주국제협의회 외 공편. 『새 천년, 새 제주: 백만 제주인의 힘과 대응전략』.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1.
- 김왕근. “세계화와 다중 시민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23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999. 4.
- 노찬옥.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시안적 연구: 세계 시민의 위상과 세계 시민교육의 방향 탐색”. 『시민교육연구』 제33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1. 9.
- 설규주. “탈국가적 시민성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세계시민성과 지역시민성의 조화로운 함양을 위한 후천적 보편주의 시민교육”. 『시민교육연구』 제32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1. 3.
- 송상순. “제주·제주인의 미래상 교육을 위한 서설”. 제주국제협의회 편. 『전환기의 제주』. 서울: 신라출판사, 1992.
- . “국제화시대와 가치관교육: 학교교육문화의 반성을 중심으로”. 제주국제협의회 외 공편. 『국제화시대의 제주교육』. 서울: 한울, 1995.
- . “제주 ‘국제자유도시’인과 세계시민교육”. 『제주국제협의회 제 14회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국제협의회·제주대 평화연구소, 2002. 6.
- 이상주. “지구촌 사회에서의 국제이해교육 진흥”. 『국제이해교육』 제3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11.
- 이승환. “새로운 국제이해교육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사업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제이해교육』 창간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4.
- 정두용·신은숙·정득진 편저. 『세계 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이해교육』. 서울: 정민사, 2000.
- 정영국. “국제이해교육과 지역연구”. 『국제이해교육』 제2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7.
- 현길연. “제주 문화의 기저와 성격: 제주 문화의 근본을 생각하기 위한 준비”. 제주국제협의회 편. 『전환기 제주 문화의 방향 모색』.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